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 개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중국의 북한 완충지대 전략을 중심으로-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제
머니투데이방송 테크엠 강진규 기자(wingofwolf@gmail.com)

< 목 차 >

- I. 서론
- II. 중국의 북한 완충지대 전략
- III. 중국군의 개입 형태
 - 1. 중국군의 대북 전력
 - 2. 정치적 상황에 따른 형태
 - 3. 지정학적 점령지역에 따른 형태
- IV. 결론

I. 서론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한반도를 정치, 군사, 경제적 완충지대로 삼기 위해서다.

국제 정치에서 적대적인 강대국들이 무력충돌과 분쟁의 발생 기회를 감소시키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소국의 독립이나 중립을 보장하는 것을 완충국가 또는 완충지대라고 하며 이런 체계를 완충체계라고 한다.¹⁾

중국은 해양세력이 팽창할 때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형성하려 했다. 이는 자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 직접적으로 상대 세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었다.²⁾

1592년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는 일본군이 자신들의 영토(만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1894~1895년 청나라는 일본의 급속한 팽창을 막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고 결국 일본과 충돌해 청일전쟁이 발생했다. 청나라는 대한제국을 완충지대로 만들지 못해 일본의 만주 진출을 막지 못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은 전쟁초기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북중 국경에 근접하자 직접 개입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 등 서방 세력과 자신들 사이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형성했다.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북 3성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움직여 적극적으로 완충지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한국의 통일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한국군과 중국군의 전면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완충지대 전략을 중심으로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군사자료 등을 분석해 정치적, 지정학적 중국군의 북한 진입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독자적 군사행동과 북한 정권이 중국군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 국제사회의 일환으로 개입하는 상황으로 한정한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이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선 50~100km에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상황, 평양-원산 라인을 점령해 경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일부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는 상황, 북한을 전면 점령한 상황으로 분석하려 한다.

II. 중국의 북한 완충지대 전략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의 균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형성했다.

1)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저,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02년 발간

2) 김연지 저, 고려대학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 완충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2014년 박사학위 논문 P69, P72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경쟁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태국을 완충지대로 미얀마에서 영국이,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안정적인 식민지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례뿐 아니라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사이의 벨기에 사례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이의 우루과이도 완충지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20세기 완충체계를 경험한 바 있다. 청나라는 내몽골, 외몽골을 사실상 지배했다. 하지만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서 몽골이 독립을 추진했고 외몽골 지역이 독립에 성공했다. 몽골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제국과 구 소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³⁾

러시아제국은 중국 세력 확장을 위협으로 느꼈지만 유럽 문제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 없었다. 러시아제국은 몽골이 독립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쳤다. 러시아제국이 붕괴되고 들어선 소련 역시 중국의 요구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독립을 지지했다. 몽골은 1989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소련의 영향을 받는 준완충국으로 역할을 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중 몽골을 통해 아시아 지역을 견제함으로써 유럽 전선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 이후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중국 입장에서도 몽골은 소련의 남하를 견제하는 체계로 활용됐다.

소련이 몽골을 이용해 유럽에 집중했던 것처럼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이용해 다른 현안들에 집중해 왔다. 중국의 정치, 군사적 현안은 대만 문제와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자치구에 대한 통제다. 중국은 1949년 12월 국민당 군대가 대만으로 철수한 후 대만과 첨예한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었다. 또 중국은 1949년 신장위구르 지역을 완전히 편입했으며 1950년 10월 티베트를 점령한 후 이들 지역에 대한 안정화에 힘써왔다.

또 중국은 1978년 12월 제11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후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1980년대, 1990년대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군사적 충돌을 경계해 왔으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직접적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대립에 많은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소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중국은 북한은 통해 한반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

중국은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 북한의 현상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3) 톱신 저, 고려대학교, 몽골의 독립과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준완충국에서 완충국으로 이행 2013년 석사논문 p34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남북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다.⁴⁾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현재 상태의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완충지대 만들기에 나설 수 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적 개입이 필연적일 것이다.

Ⅲ. 중국군의 개입 형태

1. 중국군의 대북 전력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230만명 규모로 육군 160만명, 공군 40만명, 해군 30만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육군은 중국 전역을 7개로 나눈 군구에 주둔하고 있다. 그중 수도가 있는 베이징 군구, 동북3성 지역의 선양 군구, 대만과 마주한 난징 군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이 집결해 있다.⁵⁾

<표1> 중국 육군 군구와 배치 병력

군구	병력	소속군
선양 군구	25만명	16집단군, 39집단군, 40집단군
지난 군구	19만명	20집단군, 26집단군, 54집단군
베이징 군구	30만명	27집단군, 38집단군, 65집단군
란저우 군구	22만명	21집단군, 47집단군
청두 군구	18만명	13집단군, 14집단군
난징 군구	25만명	1집단군, 12집단군, 31집단군
광저우 군구	18만명	41집단군, 42집단군

출처: 글로벌 시큐리티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china/pla.htm>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선양 군구에 주둔하고 있는 16집단군, 39집단군, 40집단군이 가장 먼저 개입할 것이다. 하지만 선양 군구 주둔 병력만으로는 북한 일부 지역만 장악할 수밖에 없다.

국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1000명당 20명의 안정화 군이 필요하다고 한다.⁶⁾ 북한 인구가 2511만명(2016년 7월 CIA 자료기준)이라고 볼 때 안정화 군은 약 50만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 전역을 점령하고자 한다면 선양 군구의 25만 병력으로는 부족해 베이징 군구, 지난 군구, 난징 군구 등의 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4) 최상복 저, 한양대학교,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연구, 2015년 박사논문 p175

5) 글로벌 시큐리티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china/pla.htm>

이에 따라 중국의 군 투입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양 군구 병력의 경우 북한 진입에 1주일이 소요되지만 베이징, 지난 군구 병력 투입에는 1개월, 난징 군구 등의 병력 투입에는 6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⁷⁾

중국은 이를 고려해 지역별로 순차적인 북한 진입 작전을 세울 수 있다.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선양 군구 병력으로 북중 접경 지역을 우선 점령한 후 추가 병력으로 평양-원산 라인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휴전선 인근까지 점령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군과 미군의 개입을 우려될 경우 선양 군구 병력으로 신의주와 평양 등 핵심 지역을 우선 점령한 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2. 정치적 상황에 따른 형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북한에서 쿠데타 등으로 내전이 발발해 기존 북한군과 반군의 투쟁이 이뤄질 수 있다. 북한 정부는 내전 상황을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전황이 분리해지면 중국에 군사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합법적인 요구가 있는 만큼 중국군은 북한에 손쉽게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반군에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정치적 모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로 UN이나 다국적군의 요청으로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중국군은 남수단, 말리, 라이베리아 등 분쟁 지역에서 UN평화유지군으로 참여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 UN이 개입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UN의 요청을 명분으로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을 분할 점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4개국 분할방안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변 사태 시 북한 지역을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4개국이 나눠서 통제한다는 것이다.⁸⁾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핵문제, 인권문제와 지역 안정화 등을 명분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이 변수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 지역 분할 점령을 통해 중국과의 군사적, 정치적 대립을 회피하려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북한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을 때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중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 주도로 북한이 통일 돼 한반도에 미국 주도의 통일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UN 등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의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

6) 허철민 저, 조선대학교,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5년 석사논문 p59

7) 허철민 저 p52

8) 주간동아 1011호 기사 '휴전선 돌파 이후' 사라진 새 작전계획 5015

독자적 작전 수행 시 중국은 북한 난민 문제, 지역 안정화, 북핵 시설 점거 등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중국은 독자적인 작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북한측 친중 인사를 내세워 북한의 요청에 따른 북한 진입을 강조할 것이다.

3. 지정학적 점령지역에 따른 형태

중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지정학적 점령지역이 결정될 것이다.

중국의 지정학적 점령은 북중 접경지역, 평양-원산 라인, 북한 전역 그리고 복합적 상황으로 나뉘볼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17만~1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중 53만명이 중국과 러시아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⁹⁾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경우 중국 동북3성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점령한 후 점령지역에서 난민을 관리할 수 있다. 중국은 비단 난민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선 북중 접경 지역을 점령해 미군, 한국군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사태를 관망할 수도 있다. 북중 접경지역 점령은 선양 군구 병력만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평양 등 핵심 지역을 점령하지 않은 상태로는 북한 지역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국은 평양-원산 라인을 점령할 수 있다. 평양과 원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정치, 경제적 실권을 장악한다는 의미가 있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북한 지배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중국이 평양을 점령하면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또 원산을 점령하는 것은 동해를 통한 북한 진입을 막고 함경도로의 진출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평양-원산 라인 점령은 경기도 북부, 강원도 북부, 황해도 남부 등 일부 지역을 남겨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휴전선과 일정 거리를 뒤 한국군, 미군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 북한 전역을 점령함으로써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북한 문제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전역을 점령하고자 한다면 동북3성을 통한 진입 뿐 아니라 해군을 통한 황해도, 남포 상륙작전과 공군, 공수부대를 이용한 평양 점령 작전을 병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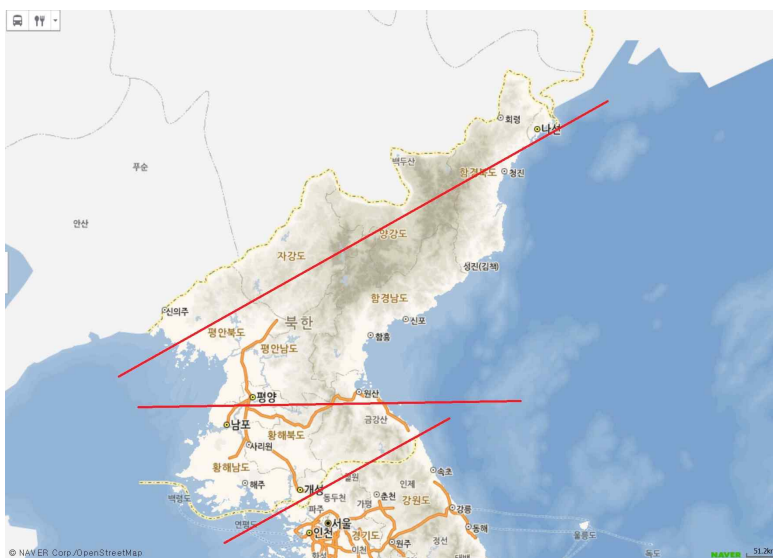
그런데 중국이 북한 전역을 점령하려고 할 경우 대규모 병력 이동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선양 군구 병력만으로 북한 전역에 대한 점령이 어렵기 때문에 베이징 군구, 지난 군구, 난징 군구 등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과 북한은 물론 미국, 일본 등이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도 높고 기습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그만큼 중국의 부담도 클 것이다.

9) 치안정책연구소 2015년 치안정책연구 29권 2호 p113, p114

중국은 기습 효과를 노리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전격적, 기습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전, 전자전 등으로 미군, 한국군, 일본군 등의 시스템과 통신을 마비시키고 동시에 기습적으로 육해공 동시 작전을 펼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완전 점령한다면 국제 사회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은 헌법상 북한은 자국의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에 가장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미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도 중국의 점령에 반발할 수 있다. 역작용으로 미국 중심의 대중국 포위 벨트를 구체화할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¹⁰⁾ 최악의 경우 휴전선과 서해, 동해 등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 평양-원산 라인, 북한 전역 점령을 단계적,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군이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선양 군구 병력 뿐 아니라 추가 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 초기에 1단계로 북중 접경지역을 점령한 후 사태를 관망할 수 있다. 관망하는 기간 동안 병력을 증원하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2단계로 평양-원산 라인을 점령해 친중 북한 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 이후 친중 북한 정권의 요청을 내세워 3단계로 사실상 북한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



<그림1> 중국군의 지정학적 점령지역

출처: 구글 맵에 논문 내용 종합

IV. 결론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다. 중국은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침공은 물론 임진왜란에 관여했고 병자호란을 일으켰으며 근대에 청일 전쟁을 벌이고 6.25전쟁에도 참전했다.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 등을 견제하면서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자원을 다른 부문에 활용하고 있다.

10) 허철민 저 p57

대만과의 통일 문제,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자치주의 독립 문제, 지속적인 경제 개발과 국내 소득 불균형 해소, 민주화요구 억제 등 중국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등과 직접적인 군사적, 정치적 대결로 인한 자원의 소모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현 북한 완충체제 유지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 완충체제가 흔들릴 경우 완충체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완충체제 만들기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은 완충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중국은 상황에 따라 선양 군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북한의 일부 또는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한국군, 미군 등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더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중국의 완전 위성국이 되거나 중국에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정치, 외교적 해법은 물론 중국군과 무력 투쟁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법은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는 것이며 차선책으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전략을 파악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국군의 북한 진입에 따른 한국군의 단계별 대응 전략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저,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02년 발간
- * 김연지 저, 고려대학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 완충체제 이론을 중심으로' 2014년 박사학위 논문
- * 톡신 저, 고려대학교, 몽골의 독립과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준완충국에서 완충국으로 이행 2013년 석사논문
- * 최상복 저, 한양대학교,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연구, 2015년 박사논문 p175
- * 글로벌 시큐리티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china/pla.htm>
- * 허철민 저, 조선대학교,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방안 2015년 석사논문
- * 주간동아 1011호 기사 '휴전선 돌파 이후' 사라진 새 작전계획 5015
- * 치안정책연구소 2015년 치안정책연구 29권 2호 p113, p114
- * 임한일 저, 한남대학교,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개입에 관한 연구 2012년 석사논문
- * 김열수 저, 국방대학교, 신아시아,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개입 : 목적·양상·형태를 중심으로 2012년
- * 정정규 저, 호남대학교, 북중 관계에 기초한 한국의 군사대응전략 :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2013년 석사논문
- *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소장 보고서 China's Response to Collapse in North Korea 2014년

-끝-